

# 순창군, 민원업무 처리 적극 대응 빛났다

###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총 1987건 해결...소음·약취 민원도 고령자 민원인 많아 전화·방문 등 접수 14일이내 처리 원칙

순창군의 민원 업무 처리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1987건의 전화, 구술 등의 민원을 접수, 해결했다. 앞서 군은 점차 높아지는 행정수요와 민원인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기타 민원 업무처리 지침을 순창군 예규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지역 특성상 고령의 민원인이 많아 군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전화, 구술, 방문 등으로 제기된 민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기타 민원 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소관부서에서 민원내용을 점검 조치 후 그에 따른 결과를 매월 20일께 민원 총괄 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괄 부서에 제기된 민원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해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민원 유형별 처리 기간을 즉시부터 최대 14일까지 정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처리 행태도 차단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의 재방문이나 전화, 구술 절차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민원인 회 방문처리 원칙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전화 민원이 1048건, 방문민원 804건, 현장 민원은 135건으로 집계돼 전화민원 처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가로등, 빈집철거, 교통 시설 분야와 각종 공사 소음, 약취 등과 관련 고충 민원도 잇따름에 따라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 민원업무절차 개선에도 고심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타 민원 처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순창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



### 남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2620만원 확보 올해도 지역 어르신께 '맛있는 국수' 드려요

남원지역 어르신들의 손맛이 듬뿍 담긴 국수를 올해도 맛볼 수 있게 됐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가 남원시니어클럽을 통해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센티브 2620만원을 확보했다. 복지부 등은 전국 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 중 모범적인 사업을 선별하기 위해 매년 평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사업단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노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방식인 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복지부의 평가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시장형사업으로 선택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거머쥔 대상은 시가 발굴지원하고 남원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5개 매장이다. <사진> 남원시니어클럽은 면사랑국수와 면사랑집밥, 농산물가공, 시니어마을 사업단, 노인복지관의 실버카페 '꽃길'을 운영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시니어클럽 농산물가공사업단에는 15명의 노인들이 일하고 있다. 노인들은 밤과 도라지, 딸기, 고추 등을 가공·납품하는 과정을 돕고 있다. 이곳의 연간 매출액은 1억3800만원에 달한다. 시니어마트사업단 역시 9명의 노인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의 연간 매출액도 1억6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확보한 인센티브를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익산시, '효 문화도시' 정착 주력

### 노인회 익산지회 등 8개 단체 업무협약 체결 '부모님께 관심 갖기' 등 효 실천 캠페인 전개

익산시가 효 문화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 8개 단체와 효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어르신이

공경 받고 시민이 행복한 효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이들 단체는 실천운동에 참여해 효 문화가 시민들 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시민운동으로 '함께해효, 사랑해

효, 행복해효, '부모님께 관심 갖기' 등 효 실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석한 신혜경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효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정신으로 효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효 실천 운동이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효 실천이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돼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효 문화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군산 상공서 18일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스페이스챌린지2019' 전북예선 축하비행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는 오는 18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군산 상공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에어쇼 시간은 오전 9시 55분부터 10시 45분까지 50분간이다. 15일에는 사전 연습비행이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0분 등 두 차례에 걸쳐 40분씩 이어진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17일 같은 시간에 연습비행이 이뤄진다. 이번 비행은 군산 월명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

lenge) 2019'의 전북 예선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회는 초·중·고교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항공우주 축제로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물로켓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군은 "비행에 따른 소음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군, 어린이 생태환경 보존 교육 강화

고창군이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25명의 어린이(엘리트 어린이집, 흥덕 솔로몬 어린이집)를 대상으로 '생태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생태환경보전 교육은 오는 7월까지(매주 화요일, 목요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진행된다. 관리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유치원생(5~7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초등학교생(1~4학년) 20명 이내의 인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유치원생 대상 '장수풍뎠이 애벌레 관찰하기'가 진행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운곡습지 삼총사(삼, 담비, 수달) 만나기'를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교육과 허브식물 화분 만들기, 관리센터 전시실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생태환경보전 교육이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와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가 함께 진행해 더욱 풍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며 "지역 어린이와 초등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임야 급매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